

社說

스튜디오 룬살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이 '사이버 룬살롱'에 무방비로 점령당했다. 초등학교

국세청은 지난해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룬살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다. 교육청은 사이버 룬살롱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제한업종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교육청이 사이버 룬살롱을 제한업종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다.

韓·美, 오해 해소하고 정보 공유 복원을

한미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할 때다. 지금은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3.0' 시대로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막강하다.

사리가 이러한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이 대북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통일부는 정 장관이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 외신 보도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구성이란 지명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C조선의 물량 공세에 K조선의 다양화 대응



데일리 Talk

이영훈 산업부 기자

지난해 8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CPSP)의 결선에 다가간 한화오션부터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가인 클락스 리서치는 중국이 지난달 전세계 선박 수주량 406만CGT(135척) 중 215만CGT(84척)을 맡았다고 밝혔다.

2위도 좋은 성적이지만, 지난 2023년 2월엔 전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53%)을 휩쓸었다.

중국은 국영에 이어 민간 조선소까지 정부 지원망에 포함시키며 해양 굴기를 앞세우고 있다.

중국의 공세가 단기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미래 먹거리인 수주전망에서도 격차는 확연하다.

이처럼 거대한 물량과의 싸움에서 K조선의 전략은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시장의 선점이다.

K조선의 전략은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서도 드러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쇄빙전용선 수주에 그치지 않고 특

수목적선 시장에 적극 진출을 공언했다. 주 사장은 "기술력과 사업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특수목적선 분야 새로운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도 지난달 23일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FLNG(부유식 액체천연가스 생산설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선별 수주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행보에 정재계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 1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과의 원팀 컨소시엄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기업들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최대 변수인 절충교역에 따른 투자 및 협력안을 모색하며 후방 지원을 강화했다.

yhlee@skyedaily.com

'방탈출'이 매혹적인 이유



청년문화 돌아보기

최창영 인공지능언어기반 인문학연구소장 신한대 명예교수

2015년 봄, 홍대 인근 건물 지하에 '서울 이스케이프룸'이라는 생소한 공간이 열렸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방탈출 카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젊은 세대의 핵심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서울 이스케이프룸의 인기 테마였던 '알카트라즈 지하감옥'에서 참가자는 실제 죄

수처럼 수갑을 차고 철창에 갇혀 게임을 시작한다. 차가운 벽면의 질감, 어두운 조명, 복도의 기괴한 효과음은 참가자를 시나리오 속 주인공으로 몰아넣는다.

지금 청년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스스로 폐쇄된 방에 갇히기를 자처하는 이유는 완전한 몰입을 향한 갈망이다.

심리학적으로, 방탈출은 즉각적인 보상의 쾌감을 극대화한다.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방탈출 세계에서는 암호를 풀 때마다 자물쇠가 '탁' 하고 열리는 성취감을 맞는다.

물론 모든 트렌드가 그렇듯 부작용도 존재한다.

안전문제가 가장 크다. 좁고 복잡한 미로형 구조와 잠긴 문은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방탈출 카페는 공간 소비 방식을 바꾸었다.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수동적 공간에서 벗어나, 서사의 주인공이 되어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공간의 시대를 열었다.

이제 방탈출은 교육, 마케팅, 관광 산업과 결합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역사적 장소에서 암호를 풀며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야외 방탈출 게임이 등장하고, 기업들은 신입사원 연수에 협동심을 기르는 데 방탈출을 도입하기도 한다.

결국 방탈출은 인간의 호기심과 성취욕,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 욕구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갯' 이야기. '갯'이란 어휘가 처음 나타난 것은 <계림유사(鷄林類事)>라는 책이다.

청년문화 돌아보기. 최창영 인공지능언어기반 인문학연구소장 신한대 명예교수. 2015년 봄, 홍대 인근 건물 지하에 '서울 이스케이프룸'이라는 생소한 공간이 열렸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드일리 임직원 일동. Image showing hands holding a small plant.

SkyDaily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직대 주경준,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형.